
OECD 세계포럼 라틴아메리카회의 참가 결과 보고

2011. 5.

기 획 조 정 관
국제협력담당관



I. 회의개요

□ 회 의 명 : 라틴아메리카회의

(Latin American Conference on Measuring Well-Being
and Foste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)

□ 회의기간 : 2011.5.11(수) ~ 5.13(금) (* 출장기간 : 2011. 5.10 ~ 5.16)

□ 출장지역 : 멕시코 멕시코시티

□ 대표단 구성

○ 단장 : 이인실 통계청장

○ 단원 :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, 이희길 통계개발원 사무관, 김수정
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

□ 회의 참가규모 : 59개국, 국제기구, 연구기관, 학계 총 700여명

II. 대표단 주요활동

○ 이인실 통계청장은 동 회의에서 “부산에서 델리까지(From Busan to Delhi)”라는 주제로 기존의 GDP를 기반으로 한 웰빙과 발전의 설명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지표개발과 측정방법 도출을 위해 개최된 제3차 OECD 부산 세계포럼('09.10)의 성과와 향후 제4차 델리포럼('12.10)이 주도해야 할 방향에 관해 연설함

- 델리포럼의 과제로는 1) 사회발전의 정의 엄밀화 및 분석틀 정교화, 2) 국가 공식통계기반의 강화, 3) 다양한 철학적 접근에 기반한 웰빙 종합지수화의 지속적 노력을 제시함

○ 멕시코, 브라질,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국가 통계청장들과 통계협력 방안 논의 및 우리 청의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확대 계획을 홍보함으로써 중남미 대륙과의 통계협력 기반을 마련함

- OECD 통계국장과 웰빙 측정에 관한 “세계포럼 아시아지역회의” (‘11.하반기, 일본) 개최를 위한 우리청의 지원과 역할 및 개도국 인사초청을 위한 세계은행 기금** 사용을 협의함
 - * 아시아지역회의에서 우리 청이 “Experience in Asia” (제1세션)를 조직하기로 합의
 - ** 우리 청은 현재 OECD 웰빙측정 글로벌 아젠다 추진을 위한 세계은행 통계역량강화 신탁기금(Trust Fund for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)을 관리 중에 있음
- 주멕시코 대사 면담을 통해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통계청의 역할 제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함

Ⅲ. 주요내용

- 라틴아메리카지역 내 사회발전 및 웰빙 측정의 현황과 측정방법에 관한 이해를 공유·확산하고, 이에 대한 분석 연구를 강화하며 구체적 결과의 도출 및 프레임워크 구축을 중점 토의함
 - ‘삶의 질: GDP를 넘어’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은 경제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GDP 중심 발전논리의 한계 인식과 진정한 발전의 의미에 대한 고찰, 발전과 삶의 질, 정책과 통계의 관계를 살펴 보며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정확한 통계 생산·활용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시킴
 - 라틴아메리카의 웰빙과 발전 측정 세션에서는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기존 수치들은 피상적이며 그 사회의 웰빙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강조하고 도시화, 현대화, 무역규모 증가, GDP 증가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웰빙까지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명실상부한 참 사회발전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

Ⅵ. 관찰 및 평가

-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관심과 참여 속에 OECD가 주도하는 웰빙 측정 작업의 분석틀과 결과물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
 - 웰빙의 영역별 논의의 구체화 및 경험적인 측정방법으로 논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,
 - 금년 10월 OECD 50주년 기념을 위해 발간될 *How's Life?* 보고서 내용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통계적, 정치적 쟁점을 유발할 수 있음
 - 동 아젠다는 우리의 국가통계 발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므로 국제적 차원의 후속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
- 웰빙 측정을 위한 주관적 지표의 측정 필요성 및 공식통계 영역 확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구체적인 측정방법의 제사가 요구됨
 - 국민을 위한 웰빙의 포괄적 설명을 위해 국가통계의 전통 영역인 객관적 지표를 보완할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어 문화적 차이와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일보시키는 노력이 필요함
- 기존의 GDP를 중심으로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하고 이해하려던 관습에서 탈피 하여 경제·사회·환경을 포함한 다차원적 지표 체계를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임